

**T-18**  
**TABLE**  
**CLINIC**

**Molar uprighting**  
**김선영 · 김현주 · 안성수 · 태기출 · 김상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구치부가 상실되는 경우, 인접치아는 근심경사되고, 대합치는 정출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근심경사된 구치의 근심 pseudopocket이 형성되어 치주조직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그 외에도, 교합력이 치아장축에 평행하지 않아 치아에 불필요한 하중이 가해지며, 보철치료시 치아 삭제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치아의 경사도를 회복시켜서 치주적인 건강과 교합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구치를 직립(uprighting)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T-19**  
**TABLE**  
**CLINIC**

**orthognathic surgery에 있어서 연조직 변화의 예측**  
**유 종 희**  
목동 예치과병원 교정과

흔히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필요로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skeletal Class III이다. Mandibular prognathism 치료방법으로 악교정 수술이 이전에 비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 교정의사와 구강외과 의사와의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후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여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에게 치료 후 모습을 미리 보여주어 다양한 수술방법에 대한 환자의 선택을 도울 수도 있다.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수술전 교정치료도 중요하지만 수술에 따른 연조직 반응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조직 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며 수술방법이나 수술의사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또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희 병원 교정과와 구강외과에 내원하여 Bilateral Sagittal-Split Osteotomy를 이용한 mandibular setback surgery와 genioplasty를 시행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 후의 X-ray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악교정 수술에 의한 bone change에 대해 연조직 변화비율을 정확히 알아내어 다른 환자를 치료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T-20**  
**TABLE**  
**CLINIC**

**견치를 절치로 대체한 치형례**  
**김혁수 · 변은선 · 남동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상악 측절치의 선천 결손시 많은 경우 교정 치료로 공간을 확보한 후 보철 치료로 수복하나 추가적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례에 따라서는 측절치 위치로 견치를 이동시켜 측절치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악 견치와 측절치가 전위 맹출된 경우에도 측절치 위치로 견치를 이동시켜 측절치를 대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중절치의 매복 또는 심한 치근 흡수 등으로 중절치를 발치하고 견치를 중절치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교정의는 임상적으로 견치를 측절치 또는 드물지만 중절치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견치와 절치 사이의 토크, 순설 위치, 모양의 차이 및 전방 유도 등을 고려하여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전치부 교합 관계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증례는 상악 견치를 절치로 대체하여 비교적 양호한 심미적, 기능적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